

이육사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김 경 복**

차 례

- | | |
|-------------------------------|-----------------------------------|
| 1. 서론 | 3. 억압받는 민중의 현실과 미래지향적 유토피아 의식 |
| 2. 고향 상실의 현실과 낙원회복 의식 | 1) 탄압받는 민중에 대한 연대와 구원으로서의 사회주의 의식 |
| 1) 황폐화된 고향과 낙원으로서의 고향 회복의식 | 2) 시간적 유토피아상과 미래지향적 선취의식 |
| 2) '푸른 하늘'에의 지향과 관념적 이상향 추구의식 | 4. 결론 |

국문초록

이육사의 시는 유토피아 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 그가 시를 행동의 표현이라 본다는 시론의 입장에서 그의 시는 변혁을 추구하는 유토피아 사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육사는 수필 「靑蘭夢」에서 이상적 삶의 모습을 꿈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유토피아적 이미지의 출현으로 유토피아 사상과 관련된다. 셋째, 그의 전기적 생애를 두고 볼 때 그의 독립

* 이 연구 결과물은 2014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운동이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전개됨을 볼 수 있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구체적 유토피아'(블로흐)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 사상으로 그의 시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이육사의 시를 살펴보면, 먼저, 그의 시는 고향상실의 현실과 낙원회복 의식을 내보인다. 「子夜曲」, 「잃어진 고향」 등의 작품을 통해 황폐해진 고향의 현실을 상징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왜 유토피아적 이미지가 필요한지를 알게 한다. 그 결과 「靑葡萄」를 비롯한 여러 작품을 통해 풍요와 평화의 상징으로서 낙원, 즉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기억 속의 행복했던 유년의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식을 표출하게 된다. 또한 '푸른 하늘'로 대변된 전통적 이상향의 가치를 여러 시 속에 담아냄으로써 일제 하 정의와 생명력이 상실된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념적 이상향을 제시한다.

그 다음 이육사는 당시 탄압받는 민중들의 삶과 고통스런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민중에 대한 연대와 구원의 유토피아 의식을 드러낸다. 「황혼」을 비롯한 여러 작품에서 사랑과 평화가 보장된 세계를 제시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달성되는 유토피아 사상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육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등의 작품을 통해 자유와 평등, 정의와 사랑이 실현된 사회주의 이상국을 그려내 보여줌으로써 구체적 유토피아 의식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 일제 치하라는 현실에서 이러한 유토피아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먼 후일 이러한 이상사회가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광야」, 「꽃」 등의 시를 통해 시간적 유토피아 이미지로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두고 볼 때 이육사의 시는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측면에서나 그의 문학적 활동가의 측면에서 당대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이상적 사회의식, 즉 유토피아 의식이 전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의 시는 민족주의 관점에서든 사회주의 관점에서든 당대

일제 식민지 현실에 가장 치열하고 정당하게 대응한 시적 행위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주제어 : 이육사, 유토피아, 고향상실, 낙원, 관념적 이상향, 시간적 유토피아, 사회주의, 이상적 사회의식

1. 서론

이육사의 시를 왜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그 동안 이육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그의 사상적 거점과 관련하여 유토피아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다만 관련된 연구로는 유토피아 사상의 전(前) 단계라 할 수 있는 낙원의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¹⁾와 민족적 국가공동체 건설로서 이상향을 언급한 논문²⁾, 그리고 낭만적 이상향에 해당하는 어떤 한 장소 지향을 헤테로토피아로 본 연구³⁾가 있을 뿐이다. 낙원 연구들은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천혜적 자연환경으로서의 낙원의 면모를 주목하였지만, 이육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꿈꾸는 이상사회의 면모, 즉 유토피아 사상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⁴⁾ 민족적 국가공동체로서의

1) 홍신선, 「낙원의 회복과 속죄양 의식」, 『시문학』, 1979년 4월.

박주택, 「이육사 시의 낙원의식 연구」, 『어문연구』68집, 어문연구학회, 2011.

2) 김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이상향 연구」, 인제대 대학원, 문학박사, 2009, 108-113쪽.

3) 박성준,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낭만성과 '다른 공간'들, 『한국문예창작』 15권1호, 2016.

4) 낙원은 자연의 혜택에 의해 나타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이고, 종교적 이상향은 신의 은총에 의해 형성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이다. 이에 반해 유토피아는 인간의 기획과 노력에 의해 성취되는 이상적 사회 속의 삶의 모습이다. 따라서 유토피아 사상은 인간의 역사적 발전에 대응한 진보적 사상 체계라 할 수 있다.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11-20쪽 참조. 이한구, 한국인

이상향 지향이라는 논문은 이육사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그 지향의 성격이 사회주의적 이상국가임을 놓치고 있다. 낭만적 이상향으로서 언급되는 헤테로토피아라는 연구도 낭만성이라는 어휘에 간혀 이육사가 꿈꾸는 이상적 사회상에 깃들여 있는 그의 인간적 기획과 노력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점에서 이육사가 민족해방을 염원하며 수행했던 독립운동이나 문필활동들은 바로 이 미래지향적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유토피아 사상의 측면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토피아적 사상으로 볼 근거는 그의 생애적 활동과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의 작품에 표현된 내용에서 검출된다. 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전기적 생애는 이미 많은 연구가 된 바 있듯이 대부분 조국 독립을 위한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연구물에서 상당수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육사의 삶을 조명한다. 그런데 최근 이육사의 전기적 생애를 엄밀히 추적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사회주의 사상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물⁵⁾이 나오고 있다. 그에 근거하여 이육사의 문학 역시 사회주의 사상의 표출로 보는 연구들⁶⁾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육사의 작품을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유토피아적 관점의 해명은 필수적이다. 왜냐면 마르크스가 제기한 사회주의 사상이야말로 역사 속에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상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실제 유토피아 사상가인 에른스트 블로흐는 공산주의 사상의 실천성과 합리성을 두고 그 전의 유토피아 사상과 구분하기 위해 ‘구체적 유토피아’라고 부르고 있다.⁷⁾ 따라서

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인문학』(최규홍 외), 석탑출판, 2013. 180-187쪽 참조.

5)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0.

6) 김경복, 이육사 시의 사회주의 의식 연구, 『한국시학연구』12집, 한국시학회, 2005.

하상일, 이육사의 사회주의 사상과 비평의식, 『한국민족문화』 26집,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5.

7)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1권, 숲, 1993, 299-309쪽.

이육사의 시가 사회주의 사상성을 띠고 있다면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살펴볼 필요성은 필연이다.

둘째, 이육사가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유토피아적 기획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육사는 시를 행동의 방편으로 보고 있다. 가령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곁양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정면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발 자욱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이오. <중략> 다만 나에게서는 행동의 연속만이 있을 따름이오, 행동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서는 시를 생각한다는 것도 행동이 되는 까닭이오.”(「季節의 五行」부분)⁸⁾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당대의 악랄한 일제와 싸우는 행동의 한 무기로 시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魯迅追悼文」을 비롯해 중국 현대시를 논평하는 글에서 문학의 사회적 기능, 즉 “文學革命에서 ‘革命文學’에란 중국 현대문학의 일대전환”(「中國 現代詩의 一斷面」)⁹⁾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의 혁명적 기능을 매우 주요하게 언급함으로써 문학의 사회성과 실천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점은 유토피아 사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칼 만하임은 유토피아의 특성을 현실 변혁이라 본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현존 체제의 유지로 정의하면서 유토피아는 행동의 단계로 이행하면서부터 기존의 질서를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적으로 파괴해 버리는 ‘현실초월적’ 방향설정을 뜻한다고 말한다. 즉 “유토피아적 의식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역작용을 가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현실성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다.”¹⁰⁾라고 말함으로써 유토피아 사상의 변혁에 대한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칼 만하임의 이러한 논

8) 김용직·손병희 편저,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 162쪽. 이하 이육사 작품의 출처는 이 책을 따르되, 다른 책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지 사항을 따로 밝히도록 하겠다.

9) 『이육사 전집』, 266쪽.

10) 칼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이출판사, 1991, 267쪽.

의를 염두에 둘 때 이육사가 생각하는 문학의 관점은 바로 유토피아 사상의 내용과 동궤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실제 이육사의 시에서 이러한 여러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수필에서 직접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유토피아적 의식이 그의 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소낙비가 지나가고 무지개가 서는 곳은 맑은 시내물이 흘렀다. 溪流를 따라 올라가면 자운영꽃이 들로 하나 다복이 편 두렁길로 하늘에 닿을 듯한 전나무 숲사이로 들어가면 살짐맥이들은 닛풀을 뜯어먹다간 벗말을 불러 소리치곤 뛰어가는 곳, 하이얀 목책이 죽 돌린 너머로 수정궁같이 깨끗한 집들이 질비한 곳에 화강암으로 깎아박은 돌계단이 길다랗게 夏陽의 옅은 햇살을 받아 진주가루라도 휘뿌리는 듯 눈이 부시다.

마치 어느 나라의 왕궁인듯 호화스럽다. 그렇다면 왕은 수렵이라도 가고 궁전만은 비여 있는 것일까 하고 돌축을 하나하나 밟아보면 또다시 길다란 줄행랑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른편으로 돌아들어 왼편으로 보이는 별실은 서재인듯 조용한 목에 뜯앞에는 조롱들 속에서 빛갈 다른 새들이 시스마금 낫설은 손님을 마저 알은 채하고 재재거리고 그 알로 화단에는 제마다 다른 제 고향의 향기를 뽑아 떨리서 온 ‘에트랑제’는 취하면 혼혼하게 잠이 들 수도 있는 것이다.

가벼운 바람과 함께 앞창이 슬쩍이 열리고는 공주보다 교만해 보이는 젊은 여자 손에는 새파란 줄기에 羊毫筆같이 하얀 봉오리가 달린 蘭花를 한다발 안고 와서는 뒤를 돌아보며 시비를 물리치곤 내 책상 우에 은으로 된 화병에다 한 대를 골라 꽃아두곤 무슨 말을 할듯할듯 하다가는 그만 부끄러운 듯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조심조심 물러가고 만 것이었다.

<중략>

꿈은 유쾌한 것 영원한 것이기도 하다.

- 「靑蘭夢」 부분¹¹⁾

11) 『이육사 전집』, 168-169쪽.

이 수필은 자신의 침실에서 “병든 마음이었고 피곤한 몸”의 상태로 꿈의 내용이다. 그런데 매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 즉 낙원에 가까운 삶의 상태를 보여준다. 글의 출발이 “溪流를 따라 올라가면 자운영 꽃이 들로 하나 다복이 핀 두렁길”로 제시되는 것을 볼 때 도연명의 ‘무릉도원’을 연상시킨다. 속세와 동떨어진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면서 그 안에는 “살집맥이들”이 “벗말”과 자유롭게 뛰놀고 있고, “수정궁같이 깨끗한 집”에 “빛갈 다른 새들이 시스마금 낫설은 손님을 마저 알은 채 하고 재재거리고”, “화단에는 제마다 다른 제 고향의 향기를 뽑아”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우아한 여인의 수발이 있는, 즉 사랑이 넘치는 쾌적한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유와 평화, 풍요와 인정이 넘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이라 할 만하다. 이 부분은 화자의 이러한 이상적 삶에 대한 기획이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원의 이미지이지만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꿈꿀 만한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 보여줌으로써 이상적 삶, 즉 유토피아적 삶의 원초적 의식을 엿보게끔 한다. 이 글을 통해 이육사는 본능적이고 직관적 차원에서도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의식의 일단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의 작품을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바라볼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이육사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통해 그의 유토피아 지향 의식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 이육사의 시를 살펴보면, 그의 시는 우선적으로 고향을 상실한 현실부정성에 반립(反立)해 낙원으로서 고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식을 내비치고, 그 연장선상에서 ‘푸른 하늘’로 대변되는 전통적 이상향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유토피아 사회를 그리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민중의 억압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형상성으로 연대와 구원의 삶,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 형상으로 사회주의적 사회상을 제시함을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당대 현실에

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 사회를 먼 후일에 달성되리란 전망을 시간적 유토피아 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고향 상실의 현실과 낙원회복 의식

1) 황폐화된 고향과 낙원으로서의 고향 회복의식

유토피아란 인류의 가장 깊은 갈망과 가장 고귀한 꿈, 그리고 가장 높은 포부가 성취되는 상상의 사회로서, 인간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깨달은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물리적·사회적·정신적 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¹²⁾를 말한다. 마르틴 부버도 유토피아를 인류 정신사에서 인류공동체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올바름에의 갈망이라고 전제한 뒤 자각적 인간의 의지 외의 어떤 다른 요인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상¹³⁾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유토피아는 만약 인간이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있을 때 ‘실제 주어져 있는 것’을 반박하고 수정한다.¹⁴⁾ 그것은 이상사회를 표상하는 까닭에 당위의 세계이며 현실에 대한 제도적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제안의 성격을 띤다.¹⁵⁾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유토피아 사상은 현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특정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구체적 상(像)을 제시해 준다¹⁶⁾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유토피아는 현실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¹⁷⁾

이러한 유토피아 사상의 특성으로 인해 유토피아 사상가들은 먼저 현

12) 로자벳 캔터, 김윤 역, 『공동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83, 10쪽.

13) 마르틴 부버, 남정길 역, 『유토피아 사회주의』, 현대사상사, 1993, 38-40쪽.

14)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 322-323쪽.

15)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11-30쪽.

16)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 탐구당, 1988, 15쪽.

17) 마르틴 부버, 앞의 책, 40쪽.

실의 부정과 비참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갖는다. 이육사의 경우에는 그의 고향을 둘러싼 암울함과 비참함에 대한 인식을 먼저 보인다. 다음 시가 가장 전형적인 그런 경우다.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고르는 꽃물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내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소리

숨막힐 마음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느냐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물에 드리느라

수만호 빛이래야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러라

- 「子夜曲」 전문¹⁸⁾

이 시에 보이는 고향은 원래 “수만호 빛이래야” 하지만 현재는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우에 이끼만 푸르”른 황폐해진 장소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는 고향에 있어보았자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과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드는 고통만 있을 뿐이라고 뇌까리고 있다. 이 파괴된 고향으로 인해 시적 화자는 “바람 불고 눈보래 치잖으면 못살이라”라며 극한적 상황을 상정하여 자신을 채

18) 『이육사 전집』, 37-38쪽.

찍질한다. 이것은 상식적 의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당대의 현실에 대결하기 위해서는 자신마저 엄혹하게 몰아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설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원형적 고향 상실을 통한 비정한 세계와 거기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자각하고 결의를 다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육사에게 고향 상실과 관련된 시는 그의 작품 속에서 여러 번 변주되어 나타난다. 가령 “바람에 붙여 돌아온 고장도 비고”(『年譜』)에서는 비어버린, 즉 폐허로 변한 고향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제비야/ 너도 故郷이 있느냐”(『잃어진 故郷』)에서는 제비와 자신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고향을 상실한 자신의 슬픔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비와 고향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시, 가령 “도라온 제비떼 拋射線을 그리며 날너재재거리는건,/ 깃드린 옛집터를 차저못찾는 괴롭갓구료.”(『春愁三題』)에서도 자신의 보금자리로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심정을 “제비떼 拋射線”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고, 고향의 황폐함과 비정함에 대해서는 “벽에서려 성애끼는 한겨울 밤은/ 洞里的 密告者인 江물조차 얼붙는다./-(幽廢된地域에서)-”(『草家』)라고 표현함으로써 “江물조차 얼붙는다”가 닭이 바로 “幽廢된地域”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들은 모두 당대의 고향을 잃은 민족의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자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서 실존적 거처를 잃은 사람들의 원망을 대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이는 시적 화자들은 진정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그곳으로부터 추방당함으로 인해 당대 일제하의 현실에 대해 침예한 소외의식을 품게 된다.

실향의식은 고향을 떠나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만, 일제 식민지 현실에서의 실향의식은 국권을 상실하고 삶의 근원을 상실한 현실인식과 상통한다.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식민지적 현실로부터 떠나서 과거의 조국을 회복하려는 의식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¹⁹⁾ 때문에 일제 시

대 고향 상실은 많은 시인들에게 유년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단초가 된다. 이육사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다. 그에게도 발생한 <추방>의식은 <현재>가 늘 품고 있는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동경을 동반하게 한다.²⁰⁾ 그 결과 유토피아상의 전 단계로서의 낙원, 즉 평화롭고 행복했던 기억 속의 고향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제시하게 된다.

내 고향 七月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靑葡萄」 전문²¹⁾

이 시에서 이상향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七月”은 고향 상실의 겨울과 대비되는 따뜻하고 밝은 계절로서 행

19) 권서각, 「육사 시와 저항의 논리」, 권서각 외, 『이육사 문학과 저항정신』, 이육사 문학관, 2014, 129쪽.

20) 임철규, 앞의 책, 367쪽.

21) 『이육사 전집』, 23-24쪽.

복한 시간 이미지다. 그 다음 나오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이미지는 무엇보다 이상향 이미지의 기본적 요소가 되는 풍요로움을 뜻하는 내용이다. 실제 풍요는 정의상 모든 사람에게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고, 이에 따라 상호간에 배타적인 선택이 있을 수 없으며,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란 문제도 있을 수 없으므로 자원할당을 놓고 벌이는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²²⁾ 즉 평화가 보장되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상황의 출발이다. 거기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는 이미지를 덧붙여 ‘마을 전설’이 갖는 문화적 충만감²³⁾과 ‘먼 데 하늘’이 갖는 천도(天道)와 공의(公義)가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의 서술어를 통해 확산되고 실현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내 고장”으로 대변된 이곳의 삶은 참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무엇보다 물질적 풍요에 의해 행복한 시공간 위에 이루어졌던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그 다음 표현들이 암시하고 있다.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이란 표현은 미래를 가정하는 내용이다. 즉 현실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있지 않으며,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곧 내 고장의 아름다움이었던 풍요와 평화가 깨어졌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행간 속에 고향 상실의 슬픔이 배어들어 있는 것이다. 그 슬픔의 일부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찾아온다는 구절로 표출된다. 다시 잃어버린 고

22) 알렉 노브, 대안체제연구회 옮김,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백의, 2001, 60쪽.

23) 이육사는 유년의 전설에 대해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가령 다음과 같이, “그나마 별의 전설 같은 것으로서 정서 방면을 매우 소중히 여기신 것을 생각하면 나의 동년은너무나 행복스러웠든 만큼”(『銀河水』, 『이육사 전집』, 174쪽)이라고 말할 것을 보면 유년의 별의 전설을 통한 문화적 접촉이 너무나 행복했음을 알 수 있다.

향을 찾기 위한 사람, 즉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한 혁명가나 투사는 일제와의 싸움에서 온갖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고달픈 몸’으로 고향에 돌아올 것이란 내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²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고향 상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올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靑袍를 입고 찾아 온다고 했으니”의 표현은 그 투사들의 약속을 뜻하는 것으로 고향 회복의 신념, 즉 투철한 혁명에의 의지를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기서 ‘靑袍’는 우리의 전통적 복식으로서 양반 사대부들이 입는 푸른 빛깔의 도포를 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청포도의 물이 배어든 옷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 손님은 자신의 고난에 찬 투쟁으로 회복한 고향에 돌아와 그 풍요를 누리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그가 약속의 증표로 필요했던 것은 그의 고향의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청포도’이지 구시대의 유물로서 전통적 복식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⁵⁾

그렇게 볼 때 이 시의 특징은 과거 고향의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현재의 결핍에 대한 암시, 그리고 미래적 삶에 대한 바람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앞부분의 과거지향적인 내용으로 복고적인 상태로의 지향이라고 오인하기 쉬우나, 그것보다는 자신을 찾아오는 손

24) 김경복은 이 ‘고달픈 손님’의 정체를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육사와 더불어 조국 독립운동을 펼쳤던 당시 혁명동지들로 보고 있는데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볼 때도 그러한 해석은 적절해 보인다. 김경복, 『이육사 시의 사회주의 의식 연구』, 『한국 현대시의 구조와 의식지평』, 박이정, 2010, 165쪽.

25) 실제 이육사는 과거의 습속으로 전해져 오는 봉건주의 잔재를 일소해 버리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지금 내 머리 속에 타고 있는 내 집은 그 속에 은축대도 있고 훌륭한 縣額도 있기는 하나 너무 古家이라 빈대가 많기로 유명한 집이었나이다. 이 집은 그나마 한쪽이 기울어서 어느 때 어떻게 쓰러질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포레온이 우리 집을 쳐들어오면 나는 그것을 모스크코같이 불을 지를 집이어늘, 그놈의 빈대란 흡혈귀를 전멸한다면 나는 내 집에 불을 싸지르고 로마를 태워버린 네로가 되오리라.”(『季節의 五行』, 『이육사 전집』, 154쪽)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이 전통적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면 그 안에 기생하고 있는 ‘빈대’는 봉건주의적 잔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인은 네로와 같이 집을 불사르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전통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님을 맞아 고향마을(조국)의 풍요를 같이 누리고 싶다는 태도의 표명으로 보아 오히려 과거의 풍족함을 미래적 삶으로 투사하여 행복한 삶을 취하고 싶다는 각오나 결의를 다지는 작품으로 보아진다. 이 미래적 바람과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의 대비적 자세는 진취적 지향의식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시 대부분이 천혜의 자연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낙원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기획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유토피아 의식의 부분적 성격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²⁶⁾

2) ‘푸른 하늘’에의 지향과 관념적 이상향 추구의식

이육사에게 낙원으로서 고향은 청포도가 갖는 풍요로움의 이미지에다 ‘이 마을 전설’과 ‘먼 데 하늘’이 결합되어 정신적 차원도 행복한 공간이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 ‘마을 전설’은 전통적 삶의 습속 가운데 계승할 만한 문화적 층위의 대상이라 할 수 있고, ‘먼 데 하늘’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근원적 장소로서 이념적 차원의 이상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하늘’은 앞에서 해석하였듯 천도(天道)와 공의(公義)가 살아있는 이상적 삶의 상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많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이육사의 시에서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의식은 여러 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현상 자체가 또 하나의 유토피아를

26) 그 점에서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의 구절을 두고 조동일이 “고난의 노래가 아니라서 사치스럽고 투쟁 없는 기다림으로 미래의 희망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90, 492쪽)란 해석, 또는 김종철의 “육사의 본질적인 관점이나 사고방식은 국권을 상실 당한 시대에 살았던 선비의 의식 내지는 엘리뜨 의식의 소산이었음이 확실하다”(『육사의 시, 그 의미와 한계』, 『문학사상』40호, 1976. 1, 209쪽)는 평가는 지나치게 문맥의 표면적 의미에 한정해 해석함으로써 발생한 편협한 시각이라 보여진다. 이육사의 앞의 수필 「靑蘭夢」이나 시 「靑葡萄」에서 볼 수 있듯이 ‘은쟁반’이나 ‘은으로 된 화병’ 등은 풍요롭고 정결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이지 가진 자의 사치스런 삶을 표현하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구하는 의식의 도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靑葡萄」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푸른 하늘’의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 「喬木」 부분²⁷⁾

그래서 더 예쁘고 진정 덧없지 아니하나
또 어데 다른 하늘을 얻어
이슬 젖은 별빛에 가꾸련다

- 「日蝕」 부분²⁸⁾

밤마다 夜光虫들의 고훈 불아래 모혀서 영화로운 잔채와 설새없는 諧
調에 따라 푸른 하늘을 꽤했다는 이야기.

- 「서울」 부분²⁹⁾

그야 한때 나라도 홀로 높고 빨라
어느때나 외로운 낮이었거니

그곳에 푸른하늘이 열리면
엇저면 내새고장도 될범하이

- 「잃어진 故鄉」 부분³⁰⁾

이 시들에 등장하는 하늘은 지상의 고통스런 삶과 대비되는 형상과

27) 『이육사 전집』, 34쪽.

28) 『이육사 전집』, 51쪽.

29) 『이육사 전집』, 76쪽.

30) 『이육사 전집』, 85쪽.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향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喬木에서 ‘푸른 하늘’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란 표현을 두고 볼 때, 교목이 자신의 절개를 보여주기 위해 지향해야할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이자 근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日蝕」에서 그것은 “또 어데 다른 하늘을 얻어”라는 표현을 두고 볼 때 새로운 세계를 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서울」에서 그것은 “영화로운 잔채와 실재없는 諧調에 따라 푸른 하늘을 껴했다는 이야기”로 두고 볼 때, 인위적 노력에 의해 추구되는 새로운 세계라는 의미를 갖는다. 「잃어진 故郷」에서 그것은 “그 곳에 푸른하늘이 열리면/ 었저면 네새고장도 될범하이”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새고장’으로서의 살 만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는다. 모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닿고자 하는 어떤 정의와 공도(公道)가 살아있는 장소로서, 고통으로 점철된 현실적 이 삶과 대비되는 새로운 세계 내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뜻한다고 보인다.

그 점에서 이육사에 시에 ‘푸른 하늘’은 그 형상성에 구체적 유토피아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지 않지만 정신적, 이념적 이상향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김석하가 해명한 하늘의 유토피아적 성격은 이육사 시를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 그는 “고조선의 崇天思想인 이른바 <天空觀>은 원시고대인의 낙원사상인 Logos며 Pathos였다. <天空>은 生과 死의 귀의처이며 고향으로 관념되었다. <중략> 천공의 낙원은 지상에 투사되는 것이 우리의 樂園觀의 역사적 전개는 논리다. 이것은 對應의 원리이기도 하다. 대응의 원리는 즉 同種의 유추다.”³¹⁾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의식 속에 하늘이 낙원사상의 근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육사의 생애적 특성으로 언급되는 유학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유교에서 하늘의 모습은 인간에게 있어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확충된 덕을 통해 구현된다.³²⁾ 천

31)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일신사, 1973, 1-2쪽.

32) 고재석, ‘대동(大同)을 향한 꿈, 유학의 이상사회’, 최규홍 외, 『유토피아 인문학』, 석탑출판, 2013, 116쪽.

사상(天思想)의 획득을 통해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군자로 보는 유교적 관점에서 하늘은 궁극의 가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육사 본인이 자신의 수필, 즉 ‘푸른 하늘’과 같은 맥락을 그리고 있는 蒼空에 그리는 마음에서 “나의 기나긴 생활의 고뇌 속에서 실로 짧은 일순간을 비수의 섬광처럼 맑고 깨끗이 개인 창공에 나의 마음을 그리나니 일망무제! 오즉 공이며 허! 이것은 우주의 첫날인 듯도 하며 나의 생의 요람인 것도 같아라. <중략> 이 지상의 모든 용납될 수 없는 존재를 그곳에 그려본다 해도 그것은 나의 자유이여라.”³³⁾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자유와 청신함의 감정을 ‘창공’이 가져다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만 그 푸른 하늘이 지닌 요소가 대체로 지상의 궁핍한 존재들이 귀의처로 삼거나 대비되는 세계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미래지향적 세계라는 점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사회의 구체적 형상성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관념적 시공간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이는 이육사에게 아직까지 천의(天意)와 공도(公道)라는 관점의 유학적 의식이 밀바탕에 깔려 있으므로 인해 이상향으로 추구되어야 할 세계가 전통적 관념의 형상인 ‘푸른 하늘’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유토피아 형상인 ‘별’의 이미지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계적 인식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3. 억압받는 민중의 현실과 미래지향적 유토피아 의식

1) 탄압받는 민중에 대한 연대와 구원으로서의 사회주의 의식

일제 하 고향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떠도는 존재는 비단 이육사 본인 한 사람에게 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량과 결식으로 떠도는 민

33) 김용직·손병희 편저,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 134쪽.

족의 비참한 현실을 이육사 본인도 겪고 있었던 만큼 탄압받아 고통스러운 민중의 현실을 자신의 경험으로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넓히는 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시는 그의 이야기이자 당시 의식 있는 조선 식민지 백성의 삶의 고통을 집약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작품이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이 구축죽한 漁村보담 어설프고
삶의 퇴끝만 오래묵은 布帆처럼 달아매였다

남들은 기뻐다는 젊은 날이었지만
밤마다 내 꿈은 西海를 密航하는 짱크와 같애
소금에 절고 湖水에 부프러 올랐다

항상 흐릿한밤 暗礁를 벗어나면 颶風과 싸워가고
傳說에 읽어본 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南十字星이 비쳐주도 았았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地平線을 한숨에 기어오르면
시궁치는 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이나
다 삭아빠즌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 왔다
먼-나 港口的 路程에 흘러간 生活을 들여다보며

- 「路程記」 전문³⁴⁾

이 시의 주된 이미지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사물을 통해 상처입은 사람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배조각”

34) 『이육사 전집』, 25-26쪽.

으로부터 시작하여 “소금에 절고 湖水에 부프러 올랐다”, “항상 흐릿한 밤 暗礁를 벗어나면 颱風과 싸워가고”, “시궁치는 熱帶植物처럼 발목을 오여쌌다” 등의 이미지를 통해 일제하의 고통스럽고 신산(辛酸)하기만 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한 마디로 시적 화자는 “쫓기는 마음 지친 몸”으로 자신의 현실적 처지를 집약해낸다. 시 제목의 「路程記」라는 말은 자신의 비참한 삶의 기록이자 당시 나라와 삶의 터전으로서 고향을 잃은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삶의 증언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당대의 현실에 대해 이육사는 비판적 성찰에 따른 암울한 현상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가령, “행랑뒤꼍목 휘젓한 상술집엔/ 팔녀온 冷害地處女를 둘러싸고/ 大學生의 지질숙한 눈초리가/ 思想善導의 염탐 밋헤 떨고만있다”(「失題」)에서 보이는 ‘냉해지’에서 팔려온 ‘처녀’의 비참한 현실과 ‘思想善導의 염탐 밋헤 떨고만잇’는 조선 식민지 백성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취하는 자못 냉정하다싶은 시선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비롯한 우리 민족 모두가 “거미줄만 발목에 걸린다해도/ 쇠사슬을 잡아맨 듯 무거워졌다”(「年譜」)의 압제 속에 신음하는 처지임을, 더 나아가 “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少年에게」)라고 자조와 광기로밖에 살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음을, 끝내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절정」)의 극한상황에 놓여있음을 지속적으로 노래하고 환기시키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상황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유토피아는 이상사회를 표상하는 까닭에 현실에 대한 제도적인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관점³⁵⁾에서, 제안의 현실적 조건이 되는 일제하의 현실, 즉 절망적이고 억압적인 사회현실의 부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화된 인식은 이육사에

35) 임철규, 앞의 책, 13쪽.

게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육사는 자연스럽게 당대의 현실을 치유하는 대안적 사상과 그 이미지를 찾아낸다. 그것은 실천 가능한 유토피아 사상으로 사회주의 의식이다. 그 의식의 내용은 다음 작품에 잘 드러난다.

내 골방의 커-텐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黃昏을 맞아드리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人間은 얼마나 외로운것이나

黃昏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보련다
그리고 네 품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十二星座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鐘소리 저문 森林속 그윽한 修女들에게도
췌멘트 장관우 그 많은 囚人들에게도
의지 가지없는 그들의 心臟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沙漠을 걸어가는 駱駝탄 行商隊에게나
아프리카 綠陰속 활 쏘는 土人들에게라도
黃昏아 네 부드러운 품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地球의 半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五月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黃昏아 來日도 또 저 푸른 커-텐을 걷게 하겠지
暗暗히 사라지는 시내수물 소리 같아서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 올줄 모르나보다

이 시를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소외된 민중에 대한 연대와 구원의식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이 작품에 나타난 정서는 대상에 연민과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이다. 이경교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육사의 시정신이 근본적으로 인간해방에 대한 각성의 토대 위에서 싹트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간해방에 대한 눈뜸은 화해와 포용이라는 유교정신에서 발현된 것”³⁷⁾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이 작품은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 유교정신에 입각해 있기보다 사회주의 의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그것은 연민의 대상들을 ‘별, 修女들, 囚人들, 行商隊, 土人들’로서 대체로 “의지 가지없는” 소외된 존재들, “떨고 있는” 대상으로 형상화한 데서 알 수 있다. 이것은 핍박받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표현한 것으로서 “내 뜨거운 입술”의 상징적 의미, 즉 민중 구원의 ‘행동’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행동은 피지배계급을 구원할 해방정신, 다시 말해 사회주의 혁명정신인 것이다.³⁸⁾

그렇게 보았을 때 「黃昏」은 바로 사회주의 사상의 휴머니티를 상징한다. 이 시에서 휴머니티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산되어 가는 정신이라면, 그것은 바로 유토피아 의식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을 넘어 인류적 차원의 사랑을 하는 것을 유토피아 의식의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³⁹⁾ 유토피아 사회는 사랑의 유토피아⁴⁰⁾이자 구원의 사회이다. 이런 사랑의 관점을 유교의 인(仁)의 실현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육사의 이 시를 유교적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는 있다. 가령 “인의 회복과 이에 의거해서 타인과의 조화로운

36) 『이육사 전집』, 21-22쪽.

37) 이경교, 『한국 현대 시정신의 형성과정 연구』, 동국대 대학원, 문학박사, 1994, 81쪽.

38) 김경복, 앞의 논문, 162쪽.

39) 김태진, 『대동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북드라망, 2012, 36-80쪽.

40) 김태진, 같은 책, 76쪽.

공존을 이루는 것이 이상사회의 완성이다. 물론 인에 의거한 조화란 개인의 희생도, 공동체의 파괴도 아닌,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상황에 맞게 조화를 유지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서의 조화다.”⁴¹⁾라고 말할 때 이는 유교적 이상사회로서 인이 실현된 사회를 일컫는다. 일정 부분 「黃昏」 시 속에 이런 정신이 깃들어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는 “囚人들인 민족을 좌절로부터 구하려는 의지”⁴²⁾가 강하게 드러나는 내용인 만큼 실천적, 혁명적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 시적 의식의 본바탕에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전기적 측면에서 이 시를 『新朝鮮』에 1935년 12월에 발표할 당시 유교적 사상의 관점에서 민족의 해방을 가져오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하여 이것을 국내에서 실천하겠다고 천명한 이육사의 언명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육사는 만주에서 의열단이 조직한 <조선혁명군사정치학교>를 1932년 입교하여 약 1년 간 수료하고 1933년 졸업하였는데, 이때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하겠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남긴 바가 있다. 이것은 육사가 군사정치학교를 졸업할 무렵 교장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동할 것인가를 토론하였는데 그때 자신의 투쟁방향을 밝혔다는 진술이다.

나는 도회지 생활이 길어서 도회지인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도회지 머물러 공작을 할 생각이다. 곧 도회지의 노동자층을 파고들어서 공산주의를 선전하여 노동자를 의식적으로 지도 교양하고, 학교에서 배운 중·한합작의 혁명공작을 실천에 옮겨 목적을 관철한다.⁴³⁾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활동 내용은 다른 기록에도 보이는데

41) 고재석, 「‘대동(大同)’을 향한 꿈, 유학의 이상사회」, 『유토피아 인문학』(최규홍 외), 석담출판, 2013, 120-121쪽.

42) 김진국, 이육사의 황혼, 『한국현대시작품론』, 문장사, 1981, 281쪽.

4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민족독립운동사자료』, 31, 1997, 192쪽 .

그가 1934년 3월 22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활동을 하기 전 서울에서 ‘고등관계조회용’이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을 때, 이육사에 대한 행적을 보장하기 위해 수집된 안동경찰서 도산 주재소의 <이원록 소행조서>(1934년 7월 20일자)에 따르면 “배일사상, 민족자결, 항상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의 선전을 할 염려가 있었음. 또 그 무렵은 민족공산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의 성질로 보아서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움”⁴⁴⁾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도 이육사의 행적이 ‘민족공산주의’로 전화되고 있음이 읽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러한 내용을 두고 볼 때 「黃昏」에 보이는 “黃昏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의 황혼은 사회주의 사상을 암시하며⁴⁵⁾, 이를 뜨겁게 받아들이는 ‘내 뜨거운 입술’은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혁명정신이자 민중에 대한 구원정신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육사의 구체적 유토피아 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육사의 시에서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구체적 유토피아상이 다음과 같은 작품으로 표출된다.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꼭한개의 별을
十二星座 그릇한 별을 엮이나 노래하겠네

꼭 한개의별! 아침날때보고 저녁들때도보는별
우리들과 아—주 靚하고 그중빛나는별을노래하자
아름다운 未來를 꾸며볼 東方의 큰별을가지자

한개의 별을 가지는건 한개의 地球를 갖는 것

4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민족독립운동사자료』, 30, 1997, 178쪽.

45) 이러한 유추를 황혼이 갖는 색채적 의미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황혼’이 갖는 붉은 색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신의 이념을 표방하기 위해 내세우는 붉은 색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아름진 서름밖에 잃을것도 없는 낡은이따에서
한개의새로운 地球를차지할 오는날의깃분노래를
목안에 피스때를 울녀가며 마음껏 불너보자

처녀의 눈동자를 늦기며 돌아가는 軍需夜業의 젊은동무들
푸른 샬을 그리는 고달픈 沙漠의 行商隊도마음을 축여라
火田에 돌을 줍는百姓들도沃野千里를 차지하자

다같이 제멋에 알맞는 豐穰한 地球의 主宰者로
임자없는 한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

한개의별 한개의 地球 단단히다저진 그따우에
모든 生産의 씨를 우리의손으로 휘뿌려보자
罌粟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餐宴엔
禮儀에 끄림없는 半醉의 노래라도 불너보자

염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神이란항상거룩합시니
새별을 차저가는 移民들의그틈에 안끼여갈테니
새로운 地球에단 罪없는노래를 眞珠처럼훗치자

한개의별을 노래하자 다만한개의 별일망정
한개 또한개의 十二星座 모든 별을 노래하자.

-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전문⁴⁶⁾

우선 이 시에서 간취되는 것은 유토피아 사상에 입각한 역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아름다운 未來를 꾸며 불 東方의 큰별을가지자”는 선언에 가까운 언명은 현실의 부정성을 환기하면서 미래지향적 의식을 확고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미래의 큰 별의 세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김학동은 이육사 시에서 별은 ‘祈求의 대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밝히면서 이 시에서의 <빛나는 별>, 즉 <한

46) 『이육사 전집』, 63-64쪽.

개의 별>은 <한 개의 地球>로 환치되어 조국을 표상하고 있다⁴⁷⁾고 밝히고 있다. 그의 해석은 포괄적으로는 맞지만 그 조국이 어떠한 성질의 것임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육사는 단순히 예전의 조국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고 싶은 열망, 즉 이 시를 통해 볼 때 사회주의 사회로서의 조국을 건설하고 싶다는 열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주체, 사회체제에 대한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에게 현재는 “서름밖에 잃을것도 없는 낡은 이따”^o으로 표상된다. 이 표현에서 ‘낡은’은 단순히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 침탈당해 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사회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지난 세기의 사회체제, 즉 봉건주의 내지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점은 “軍需夜業의 젊은동무들”, “行商隊”, “火田에 돌을 줍는百姓”, 즉 하층 피지배계급들이 저마다 “地球의 主宰者로/임자없는 한개의 별을 가지”는, 다시 말해 농민으로 볼 때 그들이 “沃野千里를 차지하”는 사회로의 지향을 보이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이다.⁴⁸⁾ 이러한 내용은 민중이 주인되어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의식한 내용이다. 그러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체가 하층 피지배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됨을 드러내고 있다.⁴⁹⁾

그 점에서 이 사회는 “새로운 地球”가 되고 “모든 生産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보”^o 수 있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사회가 되는 것이다.

47) 김학동, 육사 이원록론, 『한국현대시인연구』, 민음사, 1977, 200쪽.

48) 여기서 옥야천리(沃野千里) 자체도 유토피아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옥야’ 자체가 기름진 땅으로서 생산력의 이상향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이상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 말은 옥야(沃野), 승지(勝地), 복지(福地), 동천(洞天), 낙토(樂土), 부산(富山), 선경(仙境) 등 이루 다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 중 옥야는 비옥한 땅을 나타내는 말이니 뛰어난 생산력을 강조한 용어다. 서신혜,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2010, 52쪽.

49) 김경복, 앞의 논문, 158쪽.

그리고 그 사회는 비록 “한개의 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한개 또 한개의 十二星座 모든 별”로 확대되어 노래되어야 할 전망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의식의 확산, 즉 사회주의 혁명의 확산에 의한 인류의 이상사회를 염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특히 이 시에서 “염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神이란항상거룩합시니/ 새별을 차저가는 移民들의그틈엔 안끼여갈테니/ 새로운 地球에단 罪없는노래를 眞珠처럼 훗치자”라고 노래함으로써 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 곧 기존의 신이란 부르주아 지배이데올로기의 시녀로 작용⁵⁰⁾했음을 인식하고 거부하는 사회주의자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에서도 뒷받침된다.⁵¹⁾

2) 시간적 유토피아상과 미래지향적 선취의식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한 유토피아 의식은 이육사 시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당시 엄혹했던 시대적 현실로 볼 때 상당한 정도로 내면화되거나 상징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으리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주의 사상의 도래를 하나의 밀물이 드는 파도소리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海潮詞」란 시가 그런 전형적인 예다. 이 시에서 먼저 “쇠줄에 끌여것는 囚人들의 무거운 발소리!/ 넷날의 記憶을 아

50) 강창민이 이러한 문맥 속에서 신은 보편적 속성인 ‘거룩함’으로 표상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잘못 본 것이다.(강창민, 『이육사의 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00쪽) 이 구절에서 신은 아주 부정적이고 타락한 존재일 뿐이다. 종교의 지배 이데올로기적 해악성에 대해 마르크스부터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나키스트 신채호가 민중들을 일신의 안락에만 머물게 하고 역사적 현실에 수동적으로 대하게끔 종교가 부채질하고 있다고 그 독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한 사례다.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단체 신채호 전집 별집』, 형설출판사, 1977, 참조.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시와 생태학적 유토피아』, 다운샘, 1999, 122-143쪽 참조.

51) “염리한 사람들”의 부분도 불교적 용어로 볼 때 이상향을 지향하는 언어로 읽힌다. 염리는 ‘염리에토(厭離穢土)’에서 온 말로 예토로 지칭된, 즉 번뇌로 가득 찬 속된 중생의 땅에 염증을 품고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불교적 차원의 극락세계를 찾아간다는 유토피아적 사유가 깃들여 있는 말이라 볼 수 있다.

롱지게 纏놓는 고이한 소리!/ 解放을 約束하든 그날밤의 陰謀를/ 먼동이 트기전 또다시 속삭여 보렴인가?”로 표현하여 착취와 부자유로 가득 찬 세상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의 현실의 현실을 지적해놓고, 그것에 대항하여 움직이는 구체적 힘의 실체를 밀려드는 파도소리로, 즉 “이밤에 날부름이 업거늘! 고이한 소리!/ 曠野를 울니는 불마진 獅子의 呻吟인가?/ 오 소리는 莊嚴한 네生涯의 마즈막 咆哮!” 소리로 언급한 뒤, 그것이 결국 “産室을 새어나는 分娩의 큰 괴로움!”이자 “한밤에 차차올 귀여운 손님”임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새로운 사상의 출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소리는 “解放을 約束하든 그날밤의 陰謀”로서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당시 독자로 하여금 너끈히 알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⁵²⁾

52) 재미있는 것은 봉건주의나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사회주의 세계가 도래하는 것을 노래하는 당대 시들이 이러한 물결(해조), 바람, 일출 등의 이미지와 땅이나 城의 붕괴, 깎질이나 각질의 파괴, 분만 등의 표현을 즐겨 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실천할 주체들을 ‘사자’와 같은 용감한 존재가 ‘旗발’을 들고 나아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아나키스트 권구현의 시에서도 이육사의 시와 매우 그 의미상 상통하는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다.

하늘이 무너지느냐 땅이 꺼지느냐
오오 우주는 새날을 낳는다 새날을
들어보라 가슴을 울리는 이 큰 소리를
새날의 産苦를 외치는 最後는 다가왔다
旗발을 날리라 햇불을 잡아라
용감스리 새날을 맞아스라 새날을

<중략>

달은 獅子여 너는 새날의 길잡이로 오라

<중략>

이 땅을 거꾸로 들어올려라 거꾸로

그 점에서 이육사는 사회주의 유토피아 사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 속에 필연적으로 등장하리라 믿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육사 스스로 “역사란 항상 앞서가는 자만이 짓는 것이며, 이것은 예술사회에 있어서도 또한 같은 것이다.”(『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⁵³⁾란 말이나, “自然의領域이라든가 社會史의領域에 다만一個의統一의인辨證法的唯物論이있을따름이다”(『自然科學과唯物辨證法』)⁵⁴⁾라는 말에서 역사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전개의 과학적 법칙을 확신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언명들은 역사전개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성이 갖는 전위성을, 그리고 유물변증법과 사적유물론에 따른 역사적 발전과정의 법칙성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신념을 피력하고 있는 것들이다. 즉 당대의 암울한 일본제국주의 하의 현실에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사회가 실현될 수 없을 지언정 역사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그 이상사회가 오리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토피아 의식은 시간적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유토피아라 부를 수 있다.⁵⁵⁾ 이육사 시에서 미래적 시간 위로 투사되는 유토피아 의식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와 「海潮詞」에 등장하는 ‘노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시에서 ‘노래’는 “임자없는 한개의 별을 가질 노래를 부르자”는 구절로 볼 때 소유와 지배가 사라진 나라의 상징, 즉 사회주의 이상국가 건설에 대한 염원의 의미를 갖는다. 「海潮詞」에 등장하는 노래는 “巨人的 誕生을 祝福하는 노래의 合奏!”로 표현되고 있음을 두고 볼 때,

바람은 사막에 달려라 海嘯야 너도 일거라
 때는 一瞬 지금 이 앞에는 오직 一瞬뿐이다
 용감한 무리여 새날을 맞아스라 새날을

- 권구현, 「새날」부분, 《동아일보》, 1930. 3. 2.(밑줄 - 연구자)

53) 김용직·손병희 편저,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 231쪽.

54) 심원섭 편주, 『원본 이육사 전집』, 집문당, 1986, 103쪽.

55) 정지창, 유토피아·유토피스틱스·리얼리즘, 『유토피아』, 문예미학사, 2000, 5쪽.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오는 존재에 대한 예찬, 즉 혁명동지들에 대한 찬양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모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혁명적 열정이나 신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성을 암시하는 측면도 있다. 그 점에서 '노래' 자체가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의식적 차원의 무기인 셈이다.

이육사 시에서 이러한 노래와 관련된 시는 여러 편 나온다. 위 시들과 관련된 것을 들자면 다음 두 편의 시를 꼽을 수 있다.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 내스江 쟁쟁 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르던 노래는 江건너 갔소

<중략>

밤은 옛스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가락 여기두고 또 한가락 어테멘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江건너 갔소

- 江건너 간 노래」 부분⁵⁶⁾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曠野」 부분⁵⁷⁾

56) 『이육사 전집』, 42-43쪽.

57) 『이육사 전집』, 54-55쪽.

이 시들에 나오는 노래는 공간적 차원에서나 시간적 차원에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江 건너 간 노래」에서 노래는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江 건너 갔소”라는 표현으로 볼 때, 강 건너의 다른 세계 속에 도달하여 그 의미를 발생시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현실의 경계 너머에 있는 장소 지향은 현실의 결핍과 한계를 초월한다는 측면에서 유토피아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曠野」에 보이는 노래는 우선 하나의 ‘씨’에 빗대어 후대에 전해진다. 무엇보다 “뿌려라”, “부르게 하리라”에 담겨있는 내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노래의 씨는 조국의 독립을 넘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초인의 탄생을 현재 이 시점에서 예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노래는 새로운 이상국가, 즉 기존의 시적 지향으로 두고 볼 때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강렬한 염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토피아 의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은 「曠野」의 초인 호출이 앞의 「海潮詞」에 보이는 “巨인의 誕生”과 그 의미상 상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曠野」에서 “千古의 뒤”로 명명된 시간적 이미지가 일정 부분 새로운 이상사회가 도래하기 필요한 시간대로 읽혀지는 만큼 시간적 유토피아 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그의 다른 시에서, 가령 “차라리 천년 뒤 이 가을밤 나와 함께/ 비스소리는 얼마나 긴가 재어보자// 그리고 새벽하늘 어데 무지개 서면/ 무지개 밝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과초」)나, “귀스밤에 우는 구슬과 사슬 끊는 소리 들으며 나는 일흠도 모를 꽃밭에 물을 뿌리며 머니 다음 날을 빌었더니// <중략> // 차라리 그 고은 손에 흰 수건을 날리렴 虛無의 分水嶺에 앞날의 旗幟를 걸고 나와 나와는 또 흐르자 부끄럽게 흐르자”(「邂逅」)에 보이는 ‘천년 뒤’와 ‘머니 다음 날’ 또한 이상적 삶이 펼쳐지리라는 기대의 시간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적 유토피아 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전개에 따른 유토피아적 세계의 도래에 대한 확신은

미래의 현실을 지금의 현실로 불러와 먼저 달성하려는 선취의식으로 이육사의 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 시가 바로 그런 경우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北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約束이여

한 바다복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城에는
나비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꽃」 전문⁵⁸⁾

이 시에서 유토피아적 이미지는 “한 바다복판 용솨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城”이다. ‘꽃城’은 “비 한방울 나리잖는 그때”도 극복하고, “北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도 이겨낸 상태에서 “한 바다복판”에서 “용솨음 치”며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매우 감격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오르는 꽃城”의 표현으로 볼 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장소에 거주하는 이들은 저마다 “나비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꽃城’은 시인 자신이 의지로 피우고자 하는 의식지향의 결정체로서 동방의 회복인 동시에 이상으로 돌아

58) 『이육사 전집』, 56-57쪽.

가는 상징적 성소라 할 수 있다.⁵⁹⁾

문제는 이 ‘꽃城’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시의 내용으로 두고 볼 때,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約束”에 따라 그 언젠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저바리지 못할 約束”은 「海潮詞」에서 보았던 “解放을 約束하던 그 날 밤의 陰謀”와 관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앞의 시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의 약속인 것이다. 그 점에서 ‘꽃城’은 사회주의 이상국가의 탄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 이육사는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필연적 도래를 믿었던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민중혁명의 절대성을 확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적 시점에 가서 “나비처럼 醉하는 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는 언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시 「曠野」에서 초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반드시 이상사회 건설의 기쁨을 자신과 같은 차원에서 노래 부르게 될 것이란 점을 확신한 것처럼, 현재에서 미래에 성취하여 이루어질 유토피아적 현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미다. 그것은 곧 현재에서 미래적 유토피아상을 미리 당겨 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선취의식이다. 이 선취의식이야말로 이육사에게 현재의 고난과 참담함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었을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4. 결론

이상으로 두고 볼 때 이육사의 시는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살펴

59) 윤석영, 「1930-40년대 한국현대시의 의식지향성 연구 -윤동주, 이용악, 이육사의 시를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 문학박사, 2004, 162쪽.

불 필요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의 시는 일차적으로 고향 상실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낙원으로 기억되었던 유년의 고향을 회복하고자 함과 동시에 그 속에 혁명동지에 대한 의식을 통해 미래지향적 의식마저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푸른 하늘’로 상징화된 형상성을 통해 비록 관념적이긴 하나 천의와 공도가 살아있는 이상향적 장소를 염원하고 있음도 살펴볼 수 있었다. 유토피아적 인식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고통 받고 억압받는 민중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 대응으로서 연대와 구원의 이미지인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그의 지향적 의식으로 내세우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제 하 당대의 현실에서 이러한 유토피아적 현실이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먼 미래에 이러한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신념과 함께 현재 자신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는 선취의식이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을 두고 볼 때 이육사의 시는 그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측면에서나 그의 문학적 활동가의 측면에서 당대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이상적 사회의식, 즉 유토피아 의식이 전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의 시는 민족주의 관점에서든 사회주의 관점에서든 당대 일제 식민지 현실에 가장 치열하고 정당하게 대응한 시적 행위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창민, 『이육사의 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고재석, 「‘대동(大同)’을 향한 꿈, 유학의 이상사회」, 최규홍 외, 『유토피아 인문학』, 석담출판, 2013, 103-133쪽.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민족독립운동사자료』 30, 1997.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민족독립운동사자료』 31, 1997.
- 권구현, 「새날」, 《동아일보》, 1930. 3. 2.
- 권서각, 「육사 시와 저항의 논리」, 권서각 외, 『이육사 문학과 저항정신』, 이육사문학관, 2014, 19-35쪽.
- 김경복, 『한국 아나키즘시와 생태학적 유토피아』, 다운샘, 1999.
- _____, 「이육사 시의 사회주의 의식 연구」, 『한국시학연구』12집, 한국시학회, 2005.
- _____, 『한국 현대시의 구조와 의식지평』, 박이정, 2010.
-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일신사, 1973.
-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 탐구당, 1988.
- 김용직·손병희 편저, 『이육사 전집』, 깊은샘, 2004.
- 김재홍, 「육사 이원록」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 김종철, 「육사의 시, 그 의미와 한계」, 『문학사상』40호, 1976. 1.
- 김진국, 「이육사의 황혼」, 『한국현대시작품론』, 문장사, 1981.
- 김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이상향 연구」, 인제대 대학원, 문학박사, 2009.
- 김학동, 「육사 이원록론」, 『한국현대시인연구』, 민음사, 1977.
- 김희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지영사, 2000.
- 김태진, 『대동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북드라망, 2012.
- 박성준, 「이육사 시에 나타나는 낭만성과 ‘다른 공간’들」, 『한국문예창작』 15권1호, 2016, 9-37쪽.

- 박주택, 「이육사 시의 낙원의식 연구」, 『어문연구』68집, 어문연구학회, 2011.
- 심원섭 편주, 『원본 이육사 전집』, 집문당, 1986.
- 서신혜, 『조선인의 유토피아』, 문학동네, 2010.
-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단계 신채호 전집 별집』, 형설출판사, 1977.
- 윤석영, 「1930-40년대 한국현대시의 의식지향성 연구 -운동주, 이용악, 이육사의 시를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 문학박사, 2004.
- 이경교, 「한국 현대 시정신의 형성과정 연구」, 동국대 대학원, 문학박사, 1994.
- 이한구, 「한국인의 유토피아」, 최규홍 외, 『유토피아 인문학』, 석탑출판, 2013, 177-218쪽.
-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 정지창, 「유토피아·유토피스틱스·리얼리즘」, 『유토피아』, 문예미학사, 2000, 1-20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산업사, 1990, 492쪽 .
- 하상일, 「이육사의 사회주의 사상과 비평의식」, 『한국민족문화』 26집,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5.
- 한국정치사상학회 편, 『이상국가론 - 동양과 서양』, 연세대 출판부, 2004.
- 홍신선, 「낙원의 회복과 속죄양 의식」, 『시문학』, 1979년 4월.
- 마르틴 부버, 남정길 역, 『유토피아 사회주의』, 현대사상사, 1993.
- 로자벳 캔터, 김윤 역, 『공동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83.
- 알렉 노브, 대안체제연구회 옮김,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 백의, 2001.
-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1권, 숲, 1993.
- 엘포, 우현주 옮김, 『엘포의 유토피아 기행』, 서해문집, 2015.
- 칼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Abstract>

Analysis of Utopian Consciousness in Yi Yuksa's Poetry

Kim, Gyeong-Bok

Yi Yuksa's poetry need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utopian consciousness for three reasons. First, Yi's poetry shows utopian consciousness that pursues change in that his poetic theory sees poetry as the manifestation of actions. Second, in his essay 「The Dream of Green Orchid(青蘭夢)」, Yi suggests dream as a form of ideal life, which is also the manifestation of a utopian image in relation with utopian consciousness. Third, Yi's life stated in his biography demonstrates the fact that he engaged in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basis of socialist ideology, called "concrete utopia" (Bloch).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explain Yi Yuksa's poet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dea of utopia

When understanding Yi Yuksa's poetry from the above-mentioned points of view, first of all, it displays the consciousness of lost homeland and recovery of paradise. Yi's poems such as 「The Midnight's Song(子夜曲)」 and 「Lost Hometown」 reveal the reality of devastated homeland in a symbolic and realistic manner, thereby letting readers know why utopian images are necessary. Consequently, many of Yi's poems including 「Green Grapes」 express the consciousness of wanting to recover the lost hometown, the place

of happy childhood, which is also the symbol of affluence and peace. In the same context, the image of 'blue sky', which stands for the value of traditional ideal world, is used in many of Yi's poems to criticize the reality of lost justice and life under the Japanese control and to suggest an ideal world for recovery from such agonizing reality.

Then, a utopian image of unity and relief for the people is created by Yi Yuksa, through depiction of the oppressed lives and harsh reality of the people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Many of Yi's poems including 'Twilight', suggest a world that guarantees love and peace to indicate the nature of the utopian ideology which can be achieved only by human efforts. Yi's poetry goes a step further to display concrete utopian consciousness by describing an ideal socialist country where freedom, equality, justice, and love are realized, for example as in 'Let's Sing One More Star'. Furthermore, Yi's realization of the fact that such utopia cannot be achieved under the Japanese control and his conviction that the ideal society will come true in a distant future are expressed in the images of utopia for later times, in his poems including 'The Wide Plain' and 'The Flower'.

In conclusion, Yi Yuksa's poetry can be seen as the manifestation of his consciousness of an ideal society, utopian consciousness in other words, which aims at overcoming the miserable reality of his times both 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a literary activist. Therefore, Yi Yuksa's poetry is meaningful as actions in the form of poems for the most fierce and just resistance against the grim reality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t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nationalism and socialism.

Key Words : Lee YukSa, utopia, consciousness of lost homeland, paradise, traditional ideal world, the images of utopia for later times, socialism, consciousness of an ideal society.

■ 논문접수 : 2016년 11월 13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

K C I